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일상으로 돌아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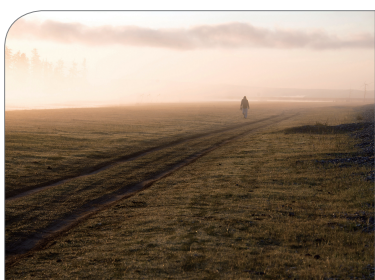
2020년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한국 천주교 역사상 처음으로 미사가 중단되었고, 우리네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묵말라하는지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부활 제3주일 복음은 루카 24,13-35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주간 첫날, ‘클레오파스’(루카 24,18)라는 제자와 익명의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 걷고 있다고 복음서 저자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스타디온은 185m로 60스타디온은 약 11km입니다. 성인이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가 4~5km 정도인데, 예루살렘 인근 지역의 지리적·기후적 여건을 고려하면 1시간에 3km 남짓 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기 속 두 제자는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으로 절망과 고통 속에서 3시간가량을 터덜터덜 걷고 있습니다. 망연자실하여 걷는 두 제자의 여정에 동반하는 이가 있지만, 그들은 그 동반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서쪽으로 해가 질 무렵이라 동반자의 얼굴이 가려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자들의 근심이 깊었기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복음서 저자가 전하는 확실한 내용은 그 동반자가 두 제자의 여정 중에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

셨다.”(루카 24,27)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속 예언들을 풀어 설명해 주는 동반자입니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어 그 동반자는 두 제자와 함께 밤을 묵기 위해 집에 들어갑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루카 24,30)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고 떼어 나누는 행위는 최후의 만찬 때 열두 제자에게 명하셨던 예수님의 성찬례, 즉 성체성사인 미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루카 24,31) 하느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 그리고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쪼개어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두 제자는 고통의 여정 중에 자신들을 동반해 준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복음서 저자는 이 이야기 속 익명의 제자와 동일시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옴은 지난 시간의 고통과 절망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옴은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온 것들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옴은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고통과 절망 앞에 좌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속삭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루카 24,34)

안개가 자욱한 새벽에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어둠은 사라지고, 밝음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이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두웠던 고통과 고난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가는 모습은 정녕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저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총을 주소서.



유동희 바오로 | 가톨릭사진가회